

恩津宋氏
圭菴文忠公派譜

恩津宋氏圭菴文忠公派宗會

文忠公戒書

勤讀書戒酒
色養生喪死
必盡情文以
慰九泉之魂
負媿而生不
如無媿而死
勿以我爲戒
怠於爲善也

<문충공부군께서 후명하실 때 자손에게 남기신 글>

勤讀書戒酒色 (근독서색)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주색을 경계하며,

養生喪死必盡情文 (양생상사필진정문)

부모가 살아서는 힘써 봉양하고 죽어서 초상을 치르는 데는 반드시 예문을 다하여,

以慰九泉之魂 (이위구천지혼)

구천에 있는 나의 넋을 위로하여라.

負媿而生不如無媿而死 (부괴이생불이사)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니,

勿以我爲戒怠於爲善也 (물이이위계태이위선야)

나로서 경계 삼아 착한 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라.

文忠公圭菴府君의 贈 · 諡

(문충공규암부군의 증 · 시)

사후에 공덕을 기리기 위해 임금으로부터 받은 증직과 시호

贈職: 吏曹判書 (증직) (이조판서) 弘文館大提學 (홍문관대제학)

藝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

諡號: 文忠 (시호) (문충) 道德博聞曰 文 (도덕박문왈 문)

危身奉上曰 忠 (위신봉상왈 충)

※道德博聞:도덕이 있고 들은 것이 많아 견문이 넓어서 문이요.

危身奉上:자기 몸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임금을 받드니 충이라.

目 次

1. 유훈	3
2. 목차	5
3. 서문	11
1) 은진송씨 족보 서(후손 남수 서)	11
2) 은진송씨 족보 서(13대손 판사공 시열 서)	12
3) 은진송씨 족보 서(22대손 판사공 근수 서)	14
4) 은진송씨 규암 문충공파보 서(문충공13대손 학헌 서)	16
5) 은진송씨 규암 문충공파보 발간사(문충공14대손 재웅 서)	17
6) 은진송씨 문충공파보 발간에 즈음하여(17대 종손 형근)	18
4. 범례	20
1) 은진송씨 족보범례	20
2) 은진송씨 신증범례	21
3) 은진송씨 정해범례	21
4) 은진송씨 문충공 규암 세계자손록 범례	23
5) 은진송씨 규암 문충공파보 경신범례(1980년)	24
6) 은진송씨 규암 문충공파보 계사범례(2013년)	25
5. 은진송씨 항렬도	26
1) 목사공파 항렬도	26
2) 정랑공파 항렬도	26

6 恩津宋氏圭菴文忠公派譜

3) 세일사일	27
6. 사진첩(선대묘소, 서원, 비, 금석문 등)	29
7. 묘소약도	44
8. 세계도	45
9. 자손록	1
10. 연보(요약)	213
11. 신도비명	219
1) 규암문충공 신도비(종제 추파공 기수찬)	221
2) 규암문충공 신도비 음기(종후손 우암 문정공 시열 찬)	227
3) 규암 문충공 묘지명(종제추파공 기수 찬)	230
4) 영모재 기문(13대손 학헌 찬)	235
5) 장사랑공(응경)묘갈문(자 지평공 승조 찬)	238
6) 임진일기(지평공(승조)유사)	239
7) 지평공(승조)유사 발어(9대손 지수 찬)	264
8) 지평공(시혁)묘지문(자 사부공 기명 찬)	267
9) 주부공(하석)묘지문(사위 영의정 문간공 이의현 찬)	269
10) 감역공(행원)묘지명(영의정 문간공 이의현 찬)	274
11) 안변공(응규)묘지명(연안인 이해익 찬)	278
12) 내현공(지수)묘지명(종손 승지 태헌 찬)	287
13) 주부공(하석)행장(자 행원 찬)	294
14) 감역공(행원)행장(자 대상 찬)	304
15) 내현공(지수)행장(족질 병순 찬)	312
16) 지평공(승조)묘표(11대손 학헌 찬)	320

17) 감역공(행원)묘표(7대손 학헌 찬)	322
18) 통덕랑공(성원)묘표(족예 학헌 찬)	325
19) 담락재공(태상)묘표(6대손 학헌 찬)	327
20) 참판공(겸수)묘표(4종손 학헌 찬)	329
21) 교리공(병관)묘표(창산 성구용 찬)	332
22) 부사공(병두)묘표(4종질 학헌 찬)	335
23) 한파공(병기)묘표(연안인 이연재 찬)	338
24) 학생공(병직)묘표(재종질 학헌 찬)	341
25) 승지공(태헌)묘표(제 학헌 찬)	344
26) 화헌공(학헌)묘표(연성 박관용 찬)	346
27) 만송공(만헌)묘표(3종제 학헌 찬)	350
28) 심농공(재용)묘표(창산 성구용 찬)	352
12. 사제문	357
1) 현종(1662년) 노봉서원 사액(대제학 김만기 제진)	359
2) 현종(1674년) 온천행차시(제진인 미상)	361
3) 숙종(1717년) 온천행차시(제진인 미상)	363
4) 영조(1750년) 온천행차시(제진인 미상)	364
5) 제 규암선생 묘문(충청관찰사 민유중)	366
13. 서원기문	369
1) 송현서원 기(1625년:동양 신희 찬)	371
2) 송현서원 묘정비 후기(1667년:우암 문정공 송시열 찬)	374
3) 화산서원 묘정비(1662년:우암 문정공 송시열 찬)	376
4) 신행서원 묘정비(1685년:우암 문정공 송시열 찬)	379
5) 노봉서원 묘정비(송환기 찬)	381
6) 굴림서원 4선생 제문(우암 문정공 송시열 찬)	385
7) 굴림서원 5선생 제문(면암 최익현 찬)	386
14. 삼현려 기(우암 문정공 송시열 찬)	390

15. 삼현주옥집 발문(초당 허엽 찬)	392
16. 삼현주옥집 서언(구암 이정 찬)	393
17. 규암선생 문집 서(종후손 연재 문충공 송병선 찬)	394
18. 규암선생 참제록 서(문충공 14대손 재용 찬)	397
19. 규암선생 서사계첩 서(종후손 연재 문충공 송병선 찬) ...	398
20. 부 록	401
1) 저명선대	403
2) 조선시대 품계표	414
3) 조선시대 관직표	416
4) 조선시대 과거제도	426
5) 조선시대의 관서약해	429
6) 조선왕조 계보	437
7) 보학용어 해설	441
8) 시호의 의미와 해설	451
9) 간지와 고간지	461
10) 묘소 좌향 보기	465
11) 연대 대조표	467
12) 육십갑자 보기	476
13) 계촌법	478
14) 문화재 지정서 사본	481
21. 발문	482
1) 은진송씨 족보 발문(문충공 14대손 재철)	482
2) 은진송씨 족보 발문(문충공 16대손 영규)	483
3) 은진송씨 문충공파보 발문(문충공 17대손 화)	485

22. 편집후기	487
23. 규암 문충공 연보	489
24. 고전번역집	687
25. 학술 발표집	779
1) 규암 송인수의 학문과 사상(충남대학교 교수 황의동)	781
2) 은진송씨 가학의 정립1 규암 송인수의 생애와 경세사상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교수 윤종빈)	795
3) 규암 송인수의 선비정신과 시세계(경상대학교 교수 허권수)	827
4) 규암 송인수의 생애와 의리정신(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석원)	851
5) 규암 송인수의 정치개혁사상(한남대학교 교수 최이돈)	867
26. 가례집	877
27. 색인록	969
28. 참고문헌	985

序 文

恩津宋氏族譜 序

余頃在漢師하야嘗撰本宗恩津世譜할새栢谷鄭相公崑壽過余라가因見謂曰凡人之宗高祖外高祖暨內外曾祖母之父祖母之祖父祖母之外祖父外祖母之祖父及外祖父가是八高祖也라撰錄八祖之系派即八寸譜也라欲一展閱而盡究源委넨盍修而爲之譜乎이거늘余感其說하야遍訪都中하야蒐得諸大家世譜六十餘卷하야窮搜博考에無有餘蘊하니惟我八祖之根枝가瞭然如視諸掌이라又叅質於友族輩하야多得其詳하니首尾14년에始爲就緒라凡內外從兄弟再從三從之類八百餘人이요若大父叔姪孫之屬은不可勝數로다遂並本宗世譜하야手寫一編하야昕夕寓目하니親愛之良心이自不覺其油然이라不亦臚耶아不幸變起倉卒하야泯沒於兵燹之中하니惜哉로다余飄泊窮村에與死爲隣하야罕與人接하고又譜牒無可徵하니雖欲更爲撰輯이나得乎아追思舊譜에如鴻踏雪하야徒費浩歎而已라今於清燕之暇에只究得本宗始末하야領其大略하고且據宗兄圭菴先生所錄世系하고叅以聞見하야錄其梗槩如左하니其於敬宗睦族之道에未必無少補爾라

萬曆己亥長至月下澣後裔柵壽敬識하노라

은진송씨 족보 서문

내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은진송씨 세보를 편찬하였다. 나의 벗 백곡정상공여인(栢谷鄭相公汝仁)이 와서 이야기 끝에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본종의 고조 외고조 및 안팎 증조모의 부친 자기 증조모와 외증조모의 조부 본종조부의 조부모와 외조모의 외조를 8고조라고한다. 8고조의 계파를 기록하여 곧 8촌이라고한다. 만약 놓고보면 여러 파를 다 알수있다. 이런 족보를 만들어보지 않겠나? 내가 그 말에 감동하여 서울 장안을 두

루 찾아다니면서 여러 대가집 족보 60여권을 수집하여 끝까지 찾고 널리 참고하여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하였더니 나의 8고조의 원과가 여러 족보에 요원하게 나타났다. 그 자손들은 우족(右族) 현재는 친구이지만 사실은 혈통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상세한 것을 알게되었다. 처음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착수하게 되었는데 무릇 안팎으로 종형제 재종형제 삼종형제 등 800여 명이나 되며 대부 숙질 및 손자까지 계애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유연히 우러났다.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불행하게도 변이 일어나서 창졸간에 병화가운데에 사라졌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궁촌에 표박하여 죽음으로 더불어 이웃을 삼고 있으니 길이 사립문 닫고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드물었으니 서적을 증빙할 수도 없고 말만으로는 믿을수도 없으니 귀 먹고 눈먼 탄식을 면치 못한다. 비록 다시 편찬코자하나 구보를 추억하여 만분의 일을 얻는다 하더라도 기러기가 눈위에 걸어진 자취와 같아서 헛되게 수고만하니 탄식할 따름이다.

다행이 마음이 고요한 틈을 타서 종파만은 그 대략을 알았으므로 종형 규암선생(송담(남수)의 3종형이 된다)이 기록하여 놓은 세계(世系)에 의거하고 듣고본 것을 참고하여 그 개략을 이와같이 기록한다. 종족을 공경하고 친척과 화목하는 도리에 반드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선조 32(己亥:1599)년 11월 일

후손 남수는 삼가 기록한다.

恩津宋氏族譜序

宋氏譜舊有數本하니其一은出自余叔父知禮公하니謂是圭菴文忠公所作也라凡例簡質하야便於考覽이요其餘本은想皆其子孫也라然이나以其親疎로各有詳略하니勢當然也라崇禎甲辰에宗人이合謀入梓할새遂就諸本하야去取折衷하고又令諸家로各具其事實而編入之際에又不免略加修刪하니要皆去煩就約하고簡其編帙하야以便印布而已라竊惟遷固는自敘其世호대遠自重黎高項하고歐陽公도亦遡至大禹而我宋은自得姓以來로其可知者僅止十餘世라其玄遠之緒略見於礪山之譜者又厯厯焉하니文獻之不足이乃如此哉인저編摩既訖에又集諸碑誌表碣과與凡記事文字하야合爲一卷하야以爲附錄하니庶幾哉저詳者不煩而略者不遺하야使來

者로可繼焉하고又惟世益遠하야子姓이益多則收爲一譜難矣라伊後則使得別自爲譜하야各有高玄하고再而成九而以俟刪集則亦當復有會通之時矣라歐陽之例正亦如此爾라然이나推以至於一人之身則孝悌之心이油然而生하야可如蘇氏之說矣요各知來處而忠義立焉則則有益朝廷이誠如張子之訓矣라凡譜於斯者所當知也니라

時崇禎丙午五月 日 判事公十三世孫時烈序하노라

은진송씨 족보 서문

『송씨보(宋氏譜)』는 옛날 여러 본(本)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나의 숙부(叔父)인 지례공(知禮公)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는 바로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문충공(文忠公)이 지은 것이다. 이것은 범례(凡例)가 매우 간편하여 열람하기에 아주 편리하다. 그 나머지 본(족보)들은 아마도 모두 이보다 뒤에 만든 것들인 듯하다. 그러나 그 친소(親疎)에 따라 각각 자상한 것과 소략한 것이 있으니, 형세가 의당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종 5(甲辰:1664)년에 종인(宗人)들이 합력하여 족보를 간행하면서 마침내 여러 본(本)을 가져다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절충(折衷)하고, 또 여러 집안[諸家]으로 하여금 각기 그 사실을 잘 구비하도록 하였으나 편입(編入)하는 즈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산삭(刪削)을 가하였으니, 요는 모두 번거로운 것을 버리고 간략하게 해서 그 편질(編帙)을 간단하게 하여 간행 반포(刊行頒布)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옥이 생각건대, 사마천(司馬遷:전한(前漢) 때의 사가(史家)로 『사기(史記)』를 지었음)과 반고(班固:후한(後漢) 때의 사가로 [한서(漢書)]를 지었음)는 스스로 그 세대(世代)를 서술하면서 멀리 중려(重黎:상고(上古) 시대 황제인 전욱 고향씨(顓頊高陽氏)의 후손)· 고옥(高項:전욱 고향씨를 가리킴)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구양공(歐陽公:송(宋) 나라 때 구양수(歐陽脩)를 가리킴)은 또한 대우(大禹:우 임금을 높여서 일컫는 말)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 송씨(宋氏)는 성(姓)을 얻은 이후로 그 알 만한 것은 겨우 10여 세(世)에 불과하고, 그 먼 윗대의 실마리는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족보에 대략 나타나 있으나, 그 역시 소략하기 그지없다. 문헌(文獻)의 부족함이 곧 이와 같다.

편집이 이미 다 끝나자 또 여러 비지(碑誌)와 갈표(碣表)와 모든 기사문자(記事文字)를 모아서 합하여 한 권(卷)을 작성해서 부록(附錄)으로 만들었으니, 거의 이제는

자상한 것은 너무 번다하지 않고 소략한 것은 빠뜨리지 않아서 장래에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생각건대, 대수가 멀어져서 자손이 더욱 많아지면 한 족보에 다 수록(收錄)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후에는 별도로 족보를 만들어 각기 고조(高祖)에서 현손(玄孫)까지를 적게 하여 9대가 다 차기를 기다려 산집(刪集)한다면 또한 마땅히 다시 회통(會通)될 때가 있을 것이다. 구양수(歐陽脩)가 만들었던 족보의 범례(凡例)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미루어서 한 사람의 몸에 이르면 효제(孝悌)의 마음이 성하게 우러나서 마치 소순(蘇洵)의 말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각기 자신의 유래(由來)를 알아서 충의(忠義)를 수립하면 조정(朝廷)에 유익한 것이 진실로 마치 장자(張子:송(宋) 나라 장재(張載)를 가리킴)의 교훈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현종 7(丙午:1666)년 5월 일에

판사공(判事公) 13대손 송시열은 쓴다.

恩津宋氏族譜 序

我宋之譜 盖數百年矣라舊有二本하니其二卷者爲祖而四卷者其孫也라往在 純祖戊子에將增刊할새工既始라가旋有岐貳之論하야遂成派譜而往往爲郭崇韜嚆矢者有之하니可勝歎哉아故叅判正熙氏가 主宗盟하야發修譜之論하니諸宗이莫不樂聞而從之커늘遂就寬洞齋舍하야用活字設局하니其規模條約을惟舊譜爲準하야以爲會通而舉羸力絀하야功未易集일세達仁甫迭掌其事하야閱數曆而竣其役하니此盖吾家屢世未遑之事 渫有待於今日이라豈不爲舉一門莫大之幸而實惟我祖先之靈이默相其事하야以底于成也아譜凡十九冊이라爲我雙淸府君之裔者無不歷歷하야一開卷에榦枝源委와親疎遠近이瞭然如視諸掌하니親愛之心이自不覺油然而生하니家之有譜를其可小乎아且念新舊譜 自兩而爲四하고自四而爲十九하니此實陰陽加倍之數라從茲以往으로又不知加倍者當爲幾何也라於不盛哉아余於是役에終始叅聞其末議하야遂略志其梗槩如此하노라

崇禎紀元後二百六十年丁亥五月 日

判事公二十二代孫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近壽謹識하노라.

은진송씨 족보 서문

우리 송가가 족보를 한것이 대개 수백년이 되었다. 옛날에 이본(二本)이 있었는데 그 이권(二卷)으로 된것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사권(四卷)으로 된것은 손자를 위한 것이다. 지난날 순조무자년(1828년)에 있어서 장차 족보를 더 간행하려고 공역(工役)을 이미 시작하였는데 문득 서로 다른 두가지 의논이 있어서 드디어 파보(派譜)를 만들었는데 왕왕 광승도효시(郭崇韜嚆矢)가 된자가 있으니 가히 탄식함을 이기겠는가 고 참판 정희(故叅判正熙)씨가 종맹(宗盟:종중대표)의 주인이되어 수보(修譜)할것을 발론(發論)하니 모든 종족이 즐겁게 듣고 쫓지 아니하는자가 없었다. 드디어 관동재사(寬洞齋舍)에 나가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국을 설치하니 그 규모조약(規模條約)은 오직 구보(舊譜)로 표준을 하여 회통(會通)을 하였는데 거사(舉事)는 크고 힘은 부족하여 공력(功力)을 모아 이루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규인(逵仁)보가 그 일을 대신 관장하여 몇년을 지나서 그 역사를 준공하니 이것은 대개 우리 가문에서 여러대에 걸쳐 하지 못하였던 일인데 오늘날을 기다림이 있는것 같으니 어찌 한 가문을 들어 크나큰 다행이 되지 않겠는가. 실은 오직 우리의 조선(祖先)의 혼령이 그 일을 묵묵히 도와 성공하게 하신 것이다. 족보가 무릇 19권으로 우리 쌍청당부군의 후예가 된자 역역(뚜렛뚜렛)하지 아니함이 없어 한번 책을 펴 보면 간지원위(幹枝源委)와 친소원근(親疏遠近)이 일목요연하게 손바닥을 보는것 같아서 친애(親愛)하는 어진마음이 유연히 생기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으니 집에 족보가 있는것이 어찌 작은일이겠는가 또 생각하니 친구족보가 둘로부터 넷이되고 넷으로부터 19권이 되었으니 이것이 실은 음양이 배가되는 수리(數理)이다. 이것을 쫓아 나아가면 또 배로 더하는것이 얼마나 될런지 알지못할 것이니 어찌 성황하지 아니하랴 내가 이 역사(役事)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그 말의(末議:마지막 논의)를 들었으므로 드디어 그 경개(梗槩)를 간략히 기록하기를 이같이 하노라.

※註:광승도효시:당나라 사람으로 벼슬은 병부상서에 이르렀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일을 간절히 간하였다. 간사한 환관이 일을 하기가 싫어 참소를 일삼고 또 유향후가 환관 마인규를 시켜 가짜 저서를 만들어 광승도를 죽이었다. 효시는 일의 시작을 말함이니 여기서는 송도를 죽이는 효시란 말이다.

때는 고종 24(丁亥:1887)년 5월 일

판사공22대손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중추부사 근수는 삼가 기록한다.

恩津宋氏文忠公派族譜 序

夫譜者난尊尊親親也譜之凡例난先賢이已盡하시니不須加言而我恩津之宋이自高麗判院事로至於文忠公先生이十一代요三百餘禩나尙無譜矣러니文忠公所錄世系로始爲刊布諸族하니始知遠近親戚을瞭然可悉이라厥后大譜난累次發刊이나文忠公派譜刊行은近於三十年에後孫이益繁하야難知遠近親戚故로發議宗中하야再刊決定하니其規模節次가有序有倫하야孝悌之心이自不覺其油然而하야盡吾宗之勝舉也라諸宗이囑余一言于卷首커늘窃念文忠府君은其道學忠節이爲世宗師하니凡爲我府君後承之同譜者는益慕其大倫宏業하야父而父하고子而子하며兄而兄하고弟而弟하며族而族하고親而親이라사可謂無忝先德이라吾門之昌大를將可期矣러니盍相與勉夫아

庚申十月 日 文忠公十三代孫鶴憲 謹 序

은진송씨 문충공파 족보 서문

무릇 족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높이고 친한 사람을 친애하는 것이다. 족보의 범례(凡例)는 선현(先賢)이 이미 다 말씀을 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우리 은진송씨가 고려 판원사(判院事)로부터 문충공(文忠公) 선생 대(代)에 이르기까지 11대요, 30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족보가 없었다가 문충공께서 기록한 세계(世系)를 비로소 간행하여 모든 종족에게 배포하여 원근친척을 비로소 환하게 다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대보(大譜)를 여러 차례 발간하였으나 문충공의 파보를 간행한 지는 30년이 가까웠는데 후손이 더욱 번성해져서 원근친척을 알기 어렵게 된 까닭으로 종중에서 의논하여 재차 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규모(規模) 절차(節次)가 질서가 있어서 효제(孝悌)의 마음이 일어나므로 진실로 우리 종중의 성대한 거사(擧事)이다. 여러 종족이 나에게 책머리에 한 마디[一言]를 쓰라고 부탁하므로, 조용히 생각해 보니 문충공 부군께서는 그 도학충절(道學忠節)이 세상에 으뜸가는 스승이 되셨으니, 무릇 우리 부군의 후손으로서 족보를 같이 한 사람은 그 큰 윤리(倫理)와 큰 사업을 더욱 사모하여 아버지는 아버지를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며, 형은 형 노릇을 하고, 겨레는 겨레 노릇을 하고, 친

한 사람은 친한 도리를 하면, 선조의 덕을 더럽힘이 없다고 가히 말할 것이다. 이로써
장차 우리 가문이 창대(昌大)하여질 것을 기대하니 어찌 서로 힘쓰지 않겠는가?

경신년(1980년) 10월 일에

문충공 13대손 학헌(鶴憲) 삼가 서문을 쓴다.

派譜 發刊事

존경하는 규암 문충공 자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종중의 공사원 재용입니다.

규암 문충공 파보를 발간한지가 어언 3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세대가 바뀌고 자손이 번성(繁盛)하여 일가 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어 파보를
새로이 발간하려 하니,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일부(一部)는 족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
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 규암 문충공 자손은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끼리 화목하여 규암 문
충공 부군의 말씀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물질의 만능과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부자(夫子)간에도 돈으로 계산되는 세
태(世態)에 부군의 숭고하신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지 못한다면 어찌 선조님들을 뵈을 수
있으며 또한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께서는 날 때부터 자질(資質)이 아름다웠고, 성장하면서 더욱 단정하고 중후(重
厚)하여 7~8세 되면서부터 이미 학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1521년(辛巳 중종16) 23세의 약관(弱冠)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사가독서
(賜暇讀書)의 영예(榮譽)를 얻었고 성리학(性理學)을 주창(主唱)하고 보급하였으나, 인
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간신 흉당들이 부군을 부박(浮薄)한 무리의 영수(領袖)
라고 모함(謀陷)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궁벽(窮僻)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지금의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지장골)에 은거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때로는 창랑(滄浪)에
낚시 넣고 조대(釣臺)에 앉았으니 낙조청강(落照淸江)에 빛소리 더욱 좋다. 유지(柳枝)에
옥린(玉鱗)을 꿰어 들고 행화촌(杏花村)으로 가리라. 라는 등 많은 시를 지었고, 선비들이
멀리서 까지 와서 부군께 배웠으며, 또한 이 시기에 은진송씨 세보를 편수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은진송씨 최초의 족보가 되고 또한 커다란 발자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명종2년(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하여 같은 해 9월19일 규암 문충공 부군에

게 후명(後命)이 내려졌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명이 내려진지 20년 후 선조원년(1567년)에 이르러서 사필규정으로 직첩(職牒)이 회복되고 현종1년(1660년)에 드디어 이조판서 대제학으로 증작(贈爵)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명(命)하였으니 정의필승(正義必勝)의 천도(天道)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어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군께서는 후명을 받고 목욕 후 아들 응경(應慶)에게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내가 화를 입었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나의 상사(喪死)를 검소하게 하고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라고 써주신 계서(戒書)는 부군의 고매하신 인격과 충의(忠義)정신은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家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암 문충공의 후손으로서 자공심(自矜心)을 갖고 타 종족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족보를 발간하여 후세에 기록으로 전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하면서 적극 협조하여 함께 해주신 종원(宗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上春

圭菴 文忠公14代孫 在雄 謹書

문충공파(文忠公派) 파보(派譜)

발간에 즈음하여

1981년도에 파보(派譜)를 편찬(編纂)하고 30여년이 지나 한 세대가 뒤바뀌는 세월이 흘러 많은 변동(變動)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많은 역사적 고증자료를 찾아 수집하고, 이를 수록·편집하여 파보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어려운 산고의 고통 끝에 파보(派譜)를 출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족보란 같은 씨족(氏族)의 시조(始祖)로부터 부계를 중심(中心)으로 한 세대간(世代間)의 혈연(血緣) 관계를 나타내는 보책(譜冊)으로, 편찬(編纂) 당시의 자손에 이르기까지를 수록(收錄)하여 기록(記錄)한 문건으로 어디까지나 종원들의 차서(次序)를 분명히 하고, 인척간의 상호유대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풍조와 우리들의 정신문화적 관념(觀念)이 가족제도에 대한 큰 변화

(變化)를 맞이하게 되어 21세기(世紀)로 접어들면서 2005년 민법(民法)이 개정되어 호주제(戶主制)가 폐지(廢止)되고, 이어 성(姓)과 본(本)의 변경 등 가족제도(家族制度)가 뿌리째 흔들리는 시기(時期)를 맞고 있다고 하나 조상들의 찬란한 업적과 기록문화를 족보라는 보책에 수록·발행하여 후손에게 알리고 후손들이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보(派譜) 제작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옛 문헌을 참조하거나 고적사료를 답사하여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록에 만전을 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수록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누락(漏落)이나 오기(誤記)가 발견되거나, 누보된 종원이 계실 경우, 하시라도 연락주시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문충공파(文忠公派)의 파보(派譜)를 개정·편찬함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종친(宗親)과 각계 인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며, 또한 우리 송씨 문중의 역사자료인 파보(派譜)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아가 은진송씨(恩津宋氏) 전 종원들이 서로 화목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종원(宗員)들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보다 더 좋은 문화발전에 우리 종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여러 종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간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西紀 2013년 上春

恩津宋氏 圭菴 文忠公派 17代 宗孫 亨根 謹書

凡 例

恩津宋氏族譜凡例라

- 本宗諸派는不限代數하고外派則不但聞見不逮라且當有輕重之分故只限四代而其間或有顯人則雖四代之外라도亦錄之라.
- 本宗繼後子를於本生下에書云爲某親後而於所後下에直書以子하야以從程子之意하고外派則只書曰繼子云云而其子孫則闕之하야以從簡者하노라.
- 諸派實跡을宜備載而聞見이不得遍及하야只隨所得而錄之故로不無詳略之異하니覽者詳之이라.

은진송씨 족보 범례

- 우리 종중의 모든 파는 대수(代數)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외파(外派)는 다만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마땅히 가볍고 무거운分別이 있기 때문에 다만 4대를 한계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혹 현달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4대가 넘더라도 역시 기록한다.
- 우리 종중의 후계(後繼)가 된 사람은 본생(本生) 아래에 “친족 아무개의 후계(後系)가 되었다.”라고 쓰며 후계로 한 사람의 아래에는 곧바로 자(子)라 써서 정자(程子)의 뜻에 따른다. 외파(外派)는 다만 계자(繼子)라고 쓰고 그 자손은 꺾(闕)해서 간편한 것을 따른다.
- 여러 파의 실적을 마땅히 갖추어 기재(記載)할 것인데 문견(聞見)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얻는 바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상하고 어떤 것은 간략하게 되었으니 열람하는 사람이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다.

新增凡例라

- 舊譜에外派則只限四代하고其間에或有顯人則雖四代之外나亦錄之而今此改譜則諸派漸蔓하야有難盡載하니雖有顯者나四代之外에不爲加錄하노라.
- 舊譜諸派實迹聞見所及을既皆備載則今此改譜之際에所當遵用舊例而代數既遠하고子孫이漸多하니如欲盡載때實涉太煩故로自雙淸祖考几代以下로實迹을今姑闕之하노라.

새로 더만든 범례

- 옛 족보에 외과는 4대로 한정하였고 그 사이에 혹시 현달한 사람이있으면 비록 4대가 지났더라도 역시 기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만드는 족보에는 여러 과가 뺄어나가 다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록 현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4대 이외에는 더 기록하지 않는다.
- 옛 족보에는 여러 과의 실적을 문견(聞見)이 미치는 것에는 이미 다 갖추어 기재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고친 족보(改譜)에 있어서는 마땅히 옛 예(舊例)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수(代數)가 멀어지고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만약 다 기재하려고 한다면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쌍청당(雙淸堂) 할아버지 이하의 실적은 뺄(闕)다.

丁亥凡例라

- 舊譜二本二卷者爲最久而四卷者具次也라純祖戊子에將修譜而議論이不一하야不得會通일새今番譜事는實數百年未遑之舉而戊子譜既非可據라其去取存刪을一以四卷譜로爲準하노라.
- 各派入后人生邊不明者를不許入錄하노라.
- 入后人不書系子는舊譜凡例固謹嚴而今於各其名下에書生父某某公派하야以

明其生邊來歷이라.

- 舊譜出后人名下에只書爲某親后而太涉模糊故로今譜에改書以出爲某親某后하다.
- 舊譜에子女를以次第書之而今番則皆先男後女하야以一二三四로以別其次第라.
- 外孫은舊譜에限四代懸錄而今番은務從簡略하야只書外孫男女라.
- 各派實蹟을依舊例並闕之라.
- 不入於四卷譜者를一不舉論而惟永興之宋이既有尤庵文正公補譜序故로特許收入於別譜라.
- 譜事를始於己卯하야訖於丁亥라.

정해년 족보의 범례

- 옛 족보가 2본 2권으로 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4권으로 된 것이 그 다음이다. 순조(純祖) 무자년(戊子年)에 족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 통문(通文)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번에 족보를 만드는 일은 실로 수백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것인데 무자보(戊子譜)는 이미 의거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버리고 취하고 존속시키고 보태고 깎는 것은 오로지 4권보를 표준으로 하였다.
- 각 파의 입후(入后:입양 즉 양자를 들임)한 사람의 출생(出生)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입록(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입후한 사람에게 계자라고 쓰지 않는 것은 옛 족보의 범례로서 진실로 근엄한 것이다, 지금 각각 그 이름 아래 생부는 모공의 파라고 써서 그 출생의 내력을 밝힌 것이다.
- 옛 족보에는 출후인(出后人) 이름 아래 다만 모친(某親)의 후(后)라고 쓰는것이 매우 모호한 까닭에 지금 족보에는 나아가 모친(某親) 아무개의 후계가 되었다고 쓴다.
- 옛 족보에는 자녀를 차례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남자를 모두 먼저 하고 여자를 뒤에 하여 1, 2, 3, 4로 그 차례를 분별하였다.
- 옛 족보에는 외손(外孫)은 4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간략한 것을 따라 다만 외손 남녀만 기록하였다.
- 각 파의 실적은 구예(舊例)에 의하여 아울러 뻗는다.

- 4권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론을 안했는데 영흥(永興)의 송씨는 이미 우암 문정공의 보보서(補譜序)가 있으므로 특별히 별보(別譜)에 거둬들이는 것을 허락한다.
- 족보의 출판은 기묘년에 시작하여 정해년에 마쳤다.

文忠公圭菴宋先生世系子孫錄凡例(1887년 경)

- 文忠公世系及子孫錄一一抄出畧用派譜例以俟叙力將營刊出.
- 參奉公以上事實一依舊譜所載而太欠闊略故今考誌狀及家傳略加添入參奉公以下異於譜體故事行并不錄只著字某號某官職履歷生卒年月墳墓所在誌狀文集及配位某封某貫某氏 父與顯祖.
- 不用橫間書以長行參奉公以上事實大註載錄以下雙行分註以世代別之行列序之而不拘年齒各分其派庶派則則書於各派之末舊譜中早夭無后者亦一例載錄.
- 男女不以次序先男後女而女婿下書以序幾以別兄弟之次子女各書於配位下以別前後配所生而無后則曰無后繼子則曰系子外孫子女不用別行分註於女婿下而無育與繼后者同上.
- 參奉公以上旁親顯著及本生世系并錄於每世子女行下參奉公以下繼后者本派則只書生父名他派則生父名下并著以某公某派(若忠顯公文正公聞道齋之類).

문충공 규암 송선생의 세계 자손록 범례

- 문충공의 세계(世系)와 자손록(子孫錄)을 하나하나 빼내어 간략히 과보의 범례를 사용하여 힘이 퍼지면 장차 간행해 내기를 기다린다.
- 참봉공 이상의 사실은 모두 옛 족보에 기재한 것을 따랐는데 거기에는 간략한 결합이 있으므로 지금 지장(誌狀:묘지와 행장)과 가문에서 전해오는 사적을 상고(祥考)하여 간략히 더 기입하였고, 참봉공 이하는 족보의 체례(體例:체제와 전해오는 예)와 다르므로 사업과 행검(行檢:점잖고 바른 몸가짐)을 아울러 기록하지 않고, 다만 자(字)는 무

엇이요, 호(號)는 무엇이며, 관직(官職)과 이력(履歷)과 생졸년월(生卒年月), 분묘(墳墓) 소재(所在), 지장문집(誌狀文集), 配位의 모봉모관모씨(某封 某官 某氏), 부(父), 현달(顯達)한 조상(祖上)등을 기록한다.

- 횡간(橫間:가로로 줄을 친 안에 벌여 적은 표)을 사용하지 않고 장행(長行:길게 내려 씀)으로 썼는데 참봉공 이상의 사실은 대주(大註:큰 주석)로 기록 하였고, 이하의 사실은 두 줄로 분주(分註)를 해서 세대(世代)로 분별하였으며 향렬(行列)로 차례를 해서 연치(年齒:나이를 말한 것)는 구애하지 않고 각각 그 파(派)를 분별하는데, 서파(庶派)는 각 파 끝에 썼으며, 옛 족보 중에 일찍 죽어 후계가 없는 사람도 역시 일례로 기록하여 실었다.
- 남녀(男女)는 차례로 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뒤에 하였으며 사위(女婿) 아래에 차례의 몇이라는 것을 써서 형제의 차례를 분별하였다, 자녀는 각각 배위 아래에 써서 전후배(前後配)의 소생(所生)을 분별하게 하였으며, 후계가 없는 사람은 무후(無后)라 하고, 계자(繼子)는 계자(系子)라고 하였으며, 외손 자녀는 별도의 줄을 사용하지 않고 여서(女婿:사위)아래에 분주로 하였으며, 기른 자녀와 후계가 없는 사람도 위와 같이 하였다.
- 참봉공 이상은 방친(傍親)으로 현달해서 나타난 사람과 본생가 세계를 아울러 매세(每世) 자녀 줄 아래에 아울러 기록하였고 참봉공 이하는 후계가 된 사람의 본파(本派)는 다만 생부(生父)의 이름만 썼으며, 다른 파는 생부 이름 아래 모공(某公)의 파(派)라고 아울러 썼다.(충현공과 문정공과 문도재와 같은 것):1874년경 작성

庚申凡例

- 我文忠公派譜刊行이近於一紀而子孫이益繁하고相居踈遠하야未免路人故로今次修譜收族하야以期親愛焉하노라.
- 譜規를實遵舊譜之例而略加損益이라.
- 舊譜實蹟을皆闕之로되今則文忠公事蹟及房下墓誌及諸文字를彙爲一篇하야附錄于譜冊後하노라.
- 諸派行列이各自不同故로今則先作行列字以期統一이라.
- 譜事를始於庚申하야訖於辛酉라.

경신년보(庚申年譜)의 범례

- 우리 문충공 파보의 간행이 일기(一紀: 옛 중국에서 12년을 일컫는 말)에 가까웠는데 자손이 더욱 번성해졌고, 서로 거주지가 소원(疎遠)해져서 길 가는 사람 같이 보게 된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금 일가[族]들의 명단을 모아 족보를 펴냄으로써 친애(親愛)를 기약한다.
- 족보에 규례(規例)는 옛 족보의 예를 따랐는데 간략히 손익(損益)을 더하였다.
- 옛 족보에는 실적을 다 뺐는데 지금은 문충공의 사적과 방하묘지(房下墓誌: 집안에 전해오는 묘지를 가리킴. 여기서 묘지는 죽은 사람의 행적, 자손의 이름, 묘지의 이름, 나고 죽을 때 들을 기록한 글)와 모든 문자를 모아 한 편(篇)으로 만들어 족보 뒤에 부록(附錄)하였다.
- 여러 파의 항렬(行列)이 각각 같지 않으므로 지금 먼저 항렬자(行列字)를 만들어 통일을 기약한다.
- 족보를 만드는 일[譜事]을 경신년(1980년)에 시작하여 신유년(1981년)에 마친다.

계사범례(癸巳凡例)(2013년)

1. 우리 문충공 파보는 1980년에 간행하여 30여년이 지나 그동안 자손이 번성하여, 종손이 참여하고 종종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파보를 제작하기 로하고 비용은 각세대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족보의 규례는 옛 족보에 따랐는데 다만 횡으로 하여 8단으로 작성하고 생졸년월일은 서기 년으로 기록하여 여러 자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선세의 묘소를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사진, 약도, 주소를 기록하였다.
4. 규암 문충공부군의 행적을 모든 후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연보, 학술발표문 등을 수록하였다.
5. 본 파보는 2007년 시작하여 2013년에 마쳤다.

恩津宋氏行列圖

牧使公脚下行列圖

24世	25世	26世	27世	28世	29世	30世	31世	32世	33世	34世	35世
○永	寅○	○燮	致○								
鎮○	○準	根○	○煥	○善	榮○	○重	鉉○	○泰	樂○	○勳	起○
○彬	容○	○基	○鎮								

正郎公脚下行列圖

24世	25世	26世	27世	28世	29世	30世	31世	32世	33世	34世	35世
彙○	○燮	基○	○鏞	永○							
熙○	圭○	○鉉	○漢	根○	性○	○均	善○	○求	柱○	○懾	重○
○憲	在○	○鎬	永○	○根							

歲一祀日

始祖	判院事(大原)	3月10日	17世	監役公(行源)	10月12日
2世	郡事(得珠)	3月10日	17世	學生公(得源)	10月14日
3世	郡事(春卿)	3月10日	17世	學生公(巨源)	10月13日
4世	執端(明誼)	3月10日	17世	學生公(成源)	10月15日
5世	進士(克己)	3月10日	17世	學生公(澄源)	10月14日
	柳祖妣	3月10日	18世	湛樂齋公(泰相)	10月12日
6世	雙清堂(愉)	10月1日		潘南朴氏(泰相配位)	10月12日
7世	持平公(繼祀)	10月10日	19世	司僕寺正公(煥復)	10月12日
8世	正郎公(順年)	10月15日		淑人全州李氏 (煥復正配位)	10月12日
9世	安東公(汝諧)	10月16日		淑人密陽朴氏()	10月12日
10世	參奉公(世良)	10月10日	19世	進士公(煥極)	10月12日
11世	文忠公(麟壽)	10月12日	20世	吏曹參議公(憲圭)	10月12日
12世	將仕郎(應慶)	10月12日	21世	吏曹參判公(欽時)	10月12日
13世	持平公(承祚)	10月12日	22世	耐軒公(志洙)	10月12日
14世	砥平公(時懃)	10月12日		崇賢書院	3月・9月 中丁日
15世	參奉公(基明)	10月12日		莘巷書院	3月初丁日
	彥陽金氏(基明配位)	10月12日		魯峰書院	3月14日
16世	主簿公(夏錫)	10月12日		橘林書院	陽9月20日 前後
16世	學生公(朋錫)	10月15日		華山書院	3月22日
16世	學生公(智錫)	10月14日	持平公(承祚)大祭日(壬亂功臣)		陰4月13日

先代墓所 선대묘소



정랑공(순년)부군 묘소(正郎公(順年)府君墓所)
대전시 동구 사성동



안동공(여해)부군 묘소(安東公(汝諧)府君墓所)
대전시 동구 비룡동



참봉공(세량)부군 묘소(參奉公(世良)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규암 문충공(인수)부군 묘소(圭菴文忠公(麟壽)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산69-3 (충청북도 문화재 제131호)



장사랑공(응경)부군 묘소(將仕郎公(應慶)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산69-3



지평공(승조)부군 묘소(持平公(承祚)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동리 산114-2



지평공(시혁)부군 묘소(砥平公(時赫)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동리 산114-2



선교랑(기명)부군 묘소(宣敎郎(基明)府君墓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산69-1

圭菴文忠公府君神道碑 규암 문충공부군 신도비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산69-3
(충청북도 문화재 제131호)

◀神道碑名 前面
(秋坡公 宋麒壽 撰)



▶神道碑 陰記 後面
(尤庵 文正公 宋時烈 撰·書)

遺墟碑 유 허 비



◀ 규암 문충공부군 유허비
(圭菴文忠公府君遺墟碑)

月城 鄭東暉 撰, 從後孫 宋浚永 書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입구

永慕齋(祭室) 영모재(제실)



영모재 제실 전경(永慕齋祭室全景)-永慕齋 記文:宋鶴憲 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706

配享書院 배향서원



송헌서원 묘정비(崇賢書院廟庭碑)

配享人物: 鄭光弼, 金淨, 宋麟壽, 金長生, 宋浚吉, 宋時烈, 宋詩榮, 李時稷 / 廟庭碑: 申欽撰 · 宋浚吉書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산35-1 (대전시 문화재 제27호)



화산서원 묘정비(華山書院廟庭碑) - 配享人物: 李彦迪, 宋麟壽 / 廟庭碑: 宋時烈撰 · 宋浚吉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산38-2 (전라북도 문화재 제4호)



신항서원 묘정비(莘巷書院 廟庭碑)

配享人物: 宋麟壽, 李珥, 李穡, 慶延, 朴薰, 金淨, 韓忠, 宋象賢, 李得胤 / 廟庭碑: 宋時烈 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20 (충청북도 문화재 제42호)



강고사(江阜祠)

配享人物: 宋麟壽, 鄭礪, 宋時烈, 宋浚吉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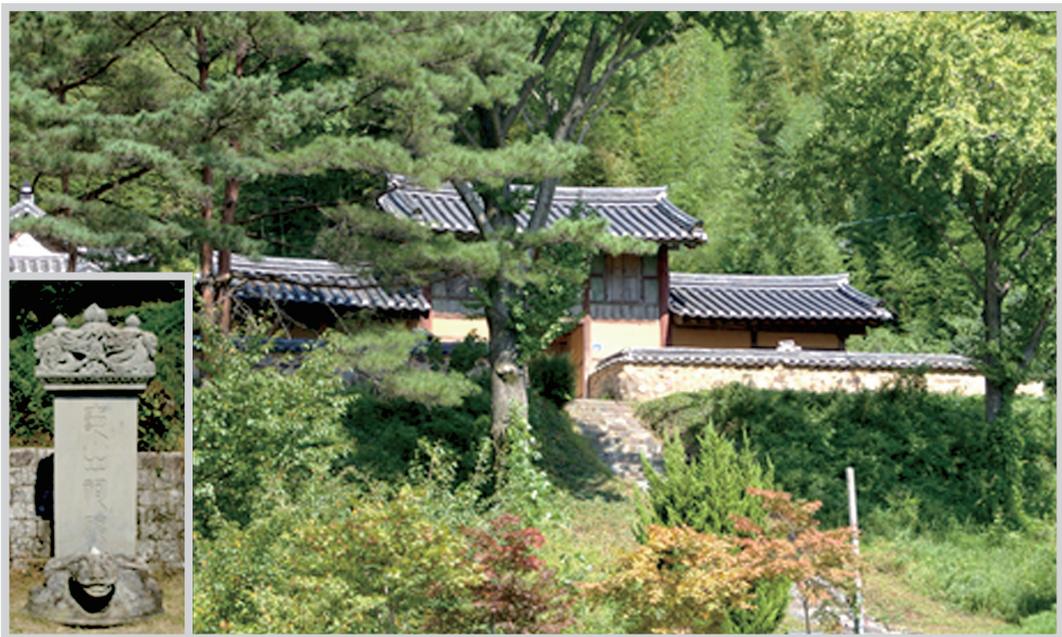
노봉서원 묘정비
(魯峯書院廟庭碑)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魯峯書院의 원래위치



오현단(五賢壇) 굴림서원(橘林書院)

配享人物: 金淨, 宋麟壽, 金尙憲, 鄭蘊, 宋時烈 / 廟庭碑: 宋時烈 撰
제주시 이도1동 1421-1 (제주도 문화재 제1호)



구계서원(이정(구암))의 배향서원(龜溪書院(李楨(龜巖))의 配享書院)

圭菴 文忠公府君의 流配地로 推定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18 (경남도 문화재 제40호)



삼현려미(三賢閭碑)

宋龜壽(西阜公), 宋麟壽(圭菴 文忠公), 妹胥 成悌元(東洲公) 세분 선생의 유적이 이곳에 많이 있으므로 우암 문정공선생께서 기록을 남긴 비



은행나무

규암 문충공부군께서 삭탈관직(을사사화) 당하고 이곳에 내려와 계실 때 지인이 기념식수 한 나무(수령:약 460년). 은행나무 옆 집터에는 규암 문충공부군께서 후명(정미사화)하신 곳이기도하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규암집(圭菴集)



참제록(參祭錄) 서사계첩(書社契帖)

讀書堂契會圖 독서당계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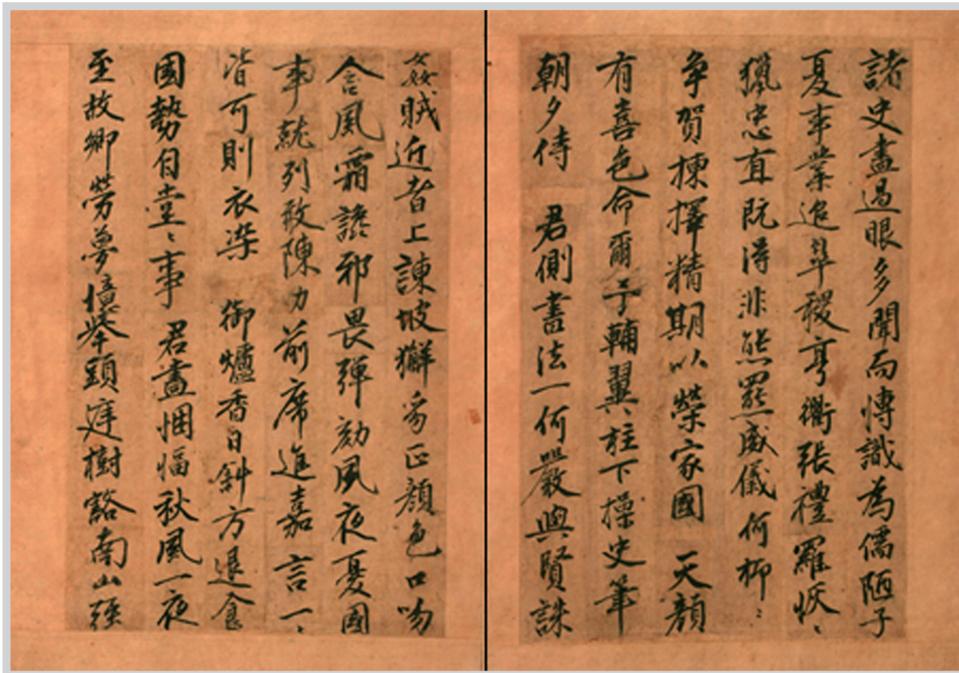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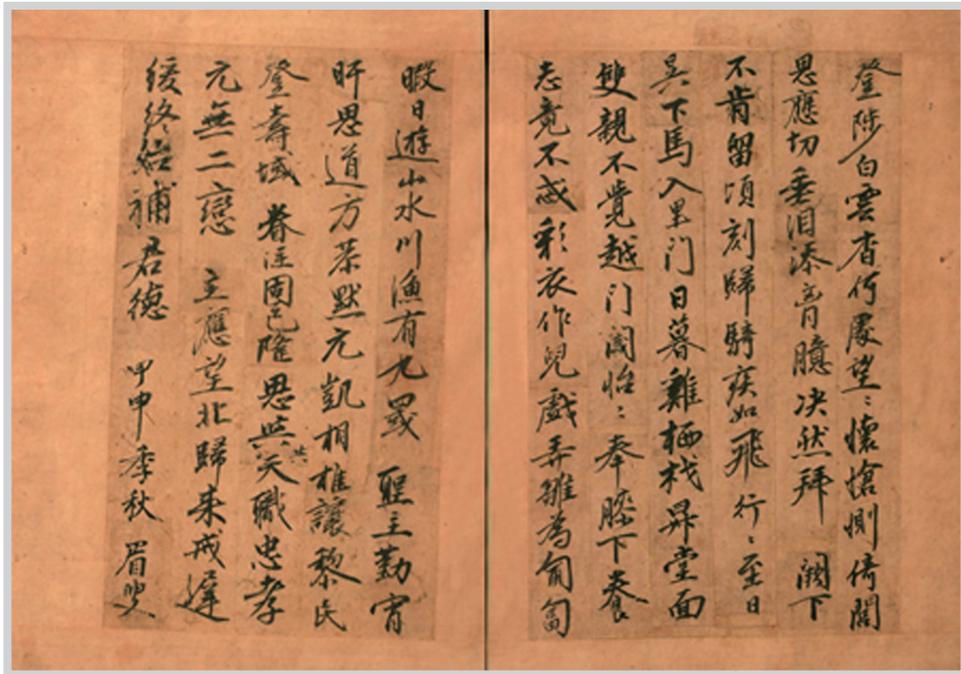
계회도 속 인물: 張玉, 洪敍疇, 許磁, 林百齡, 宋麟壽, 宋純, 周世鵬 등 12인
(1531년경 작. 작가미상. 소장자: 일본인)

圭菴文忠公府君遺墨二種 규암 문충공 부군 유묵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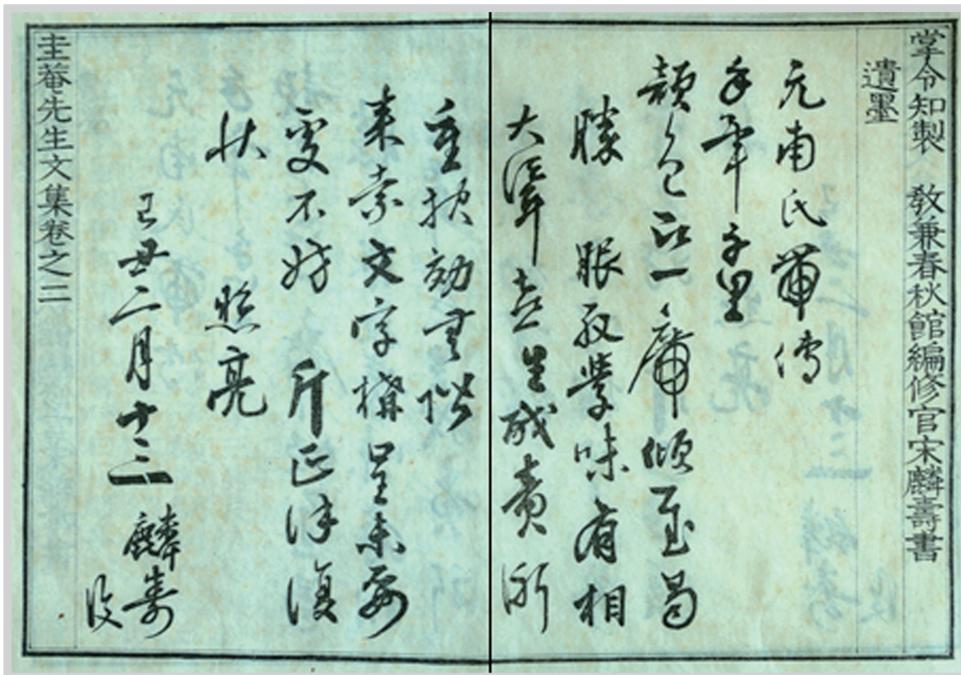
金緣(字:自由, 號:雲巖)의 歸覲길을 전승 함(送金雲巖 緣 歸覲)

光山金氏 禮安派 宗中 所藏 (경상북도 문화재 제10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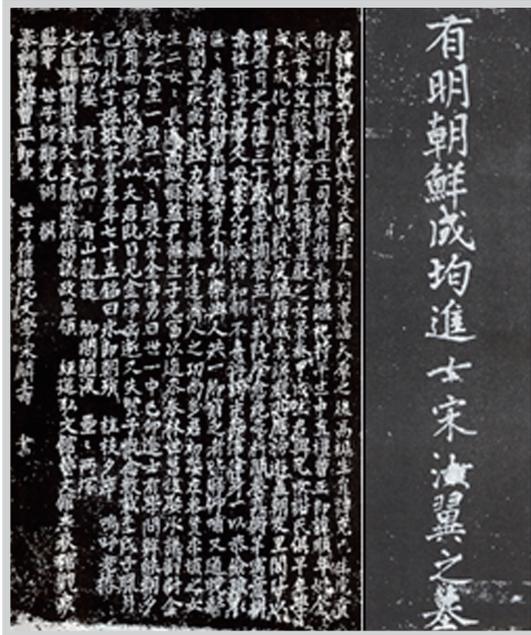




원보(元甫)에게
(소재 불명)



(圭菴 文忠公府君의 親筆) 金石文 金 石 文 金 石 文



동파공(여익)묘갈명(東坡公(汝翼)墓碣名) 윤백령묘갈명(尹伯齡墓碣名)
鄭光弼 撰, 圭菴 文忠公 宋麟壽 書

윤백령묘갈명(尹伯齡墓碣名)
圭菴 文忠公 宋麟壽 書



2007年 6月 규암 문충공 송인수(圭菴文忠公宋麟壽)
학술대회 광경(學術大會光景)



2009年 은진송씨대종중 선적지 순례(恩津宋氏大宗中先蹟地巡禮)
문충공 묘소 참배(文忠公墓所參拜)를 마치고

靑石橋 청석교



신라 문무왕(新羅文武王)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정유왜란(丁酉倭亂) 때
지평공(승조)부군(持平公(承祚)府君)께서 왜군(倭軍)과 싸우다

1597年 9月 16日 순절(殉節)하신 곳

충북 옥천군 군서면 증약리1068-1 (충청북도 문화재 제121호)

先代墓所略圖 선대 묘소 약도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산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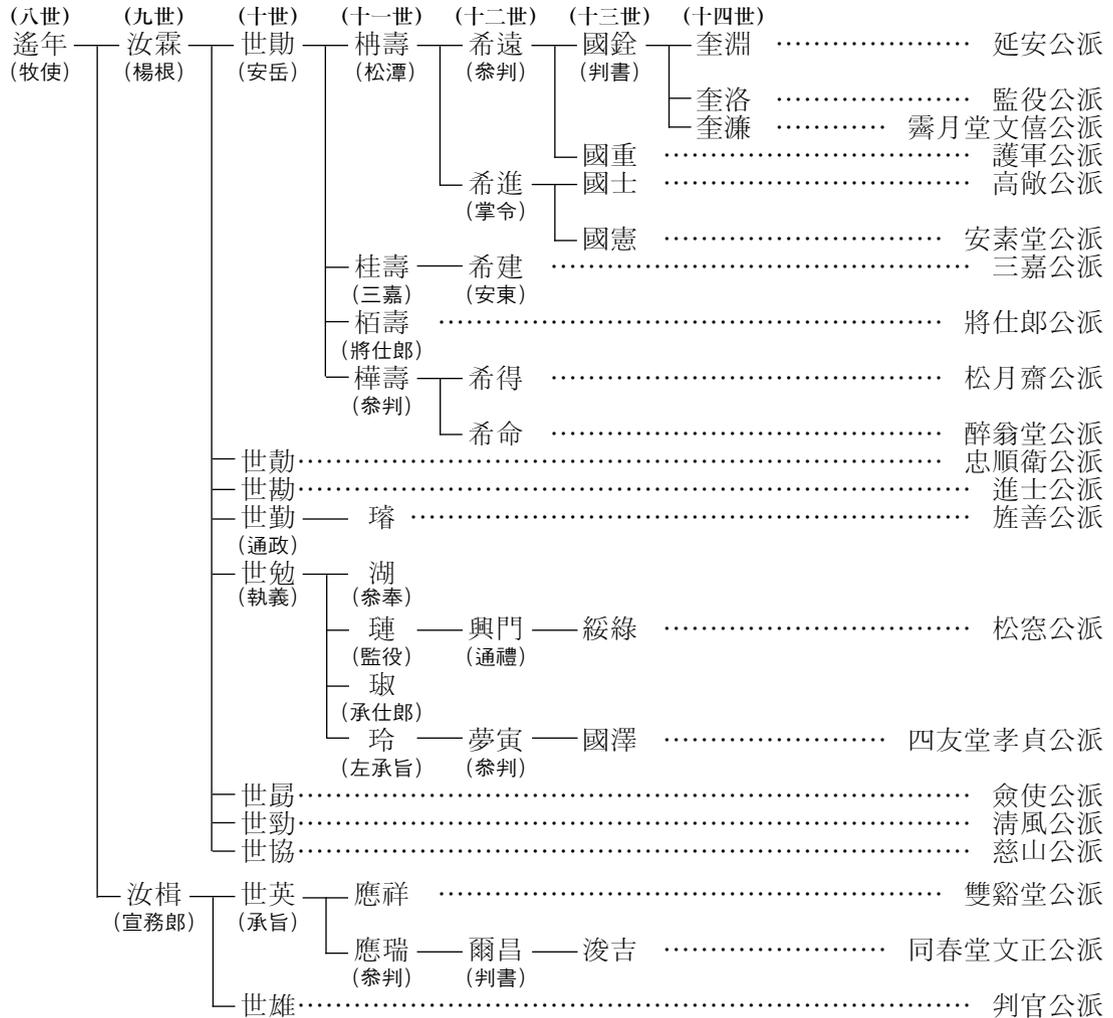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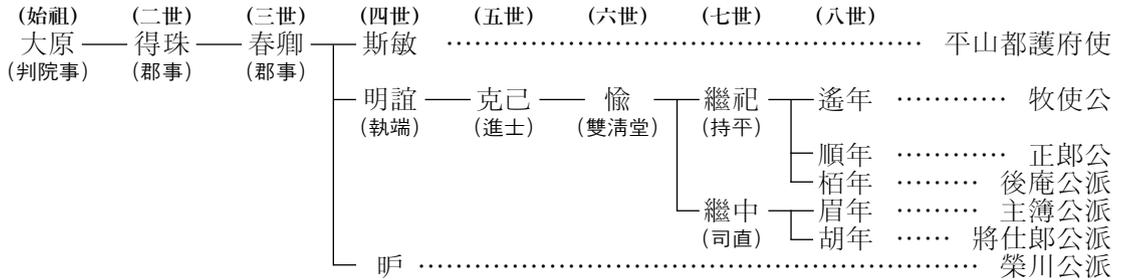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동리 산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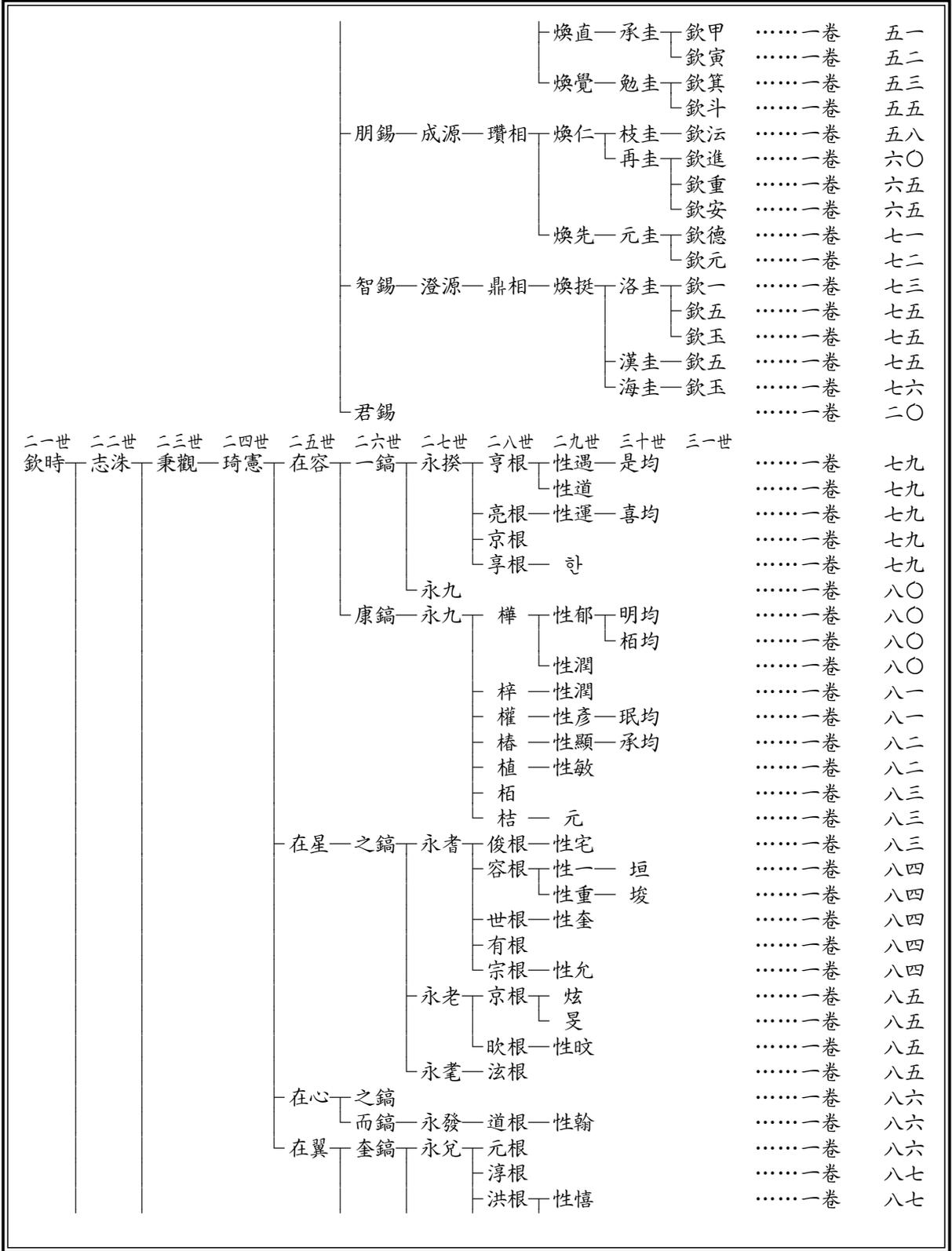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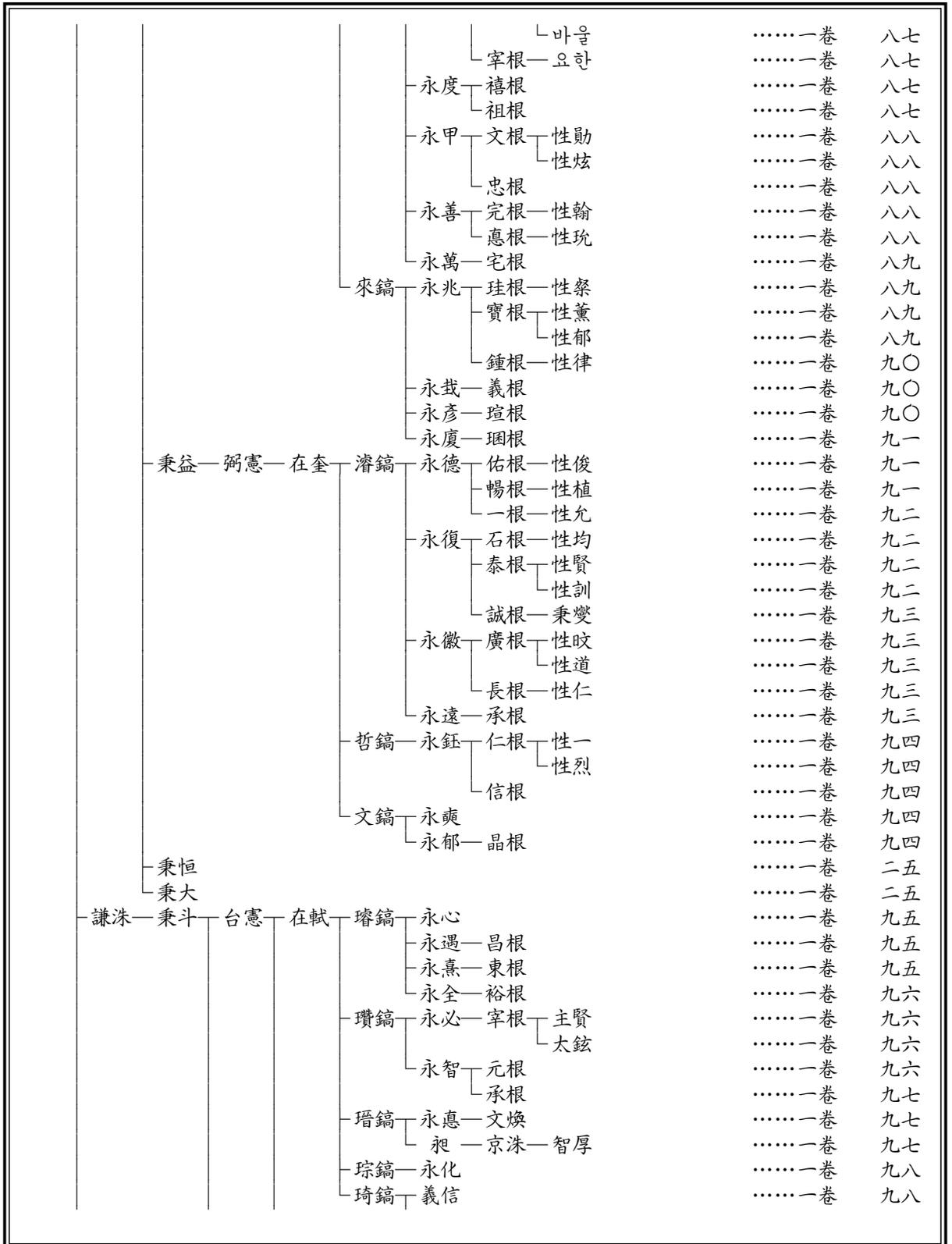
- ① 규암 문충공(인수)(圭菴文忠公(麟壽))
정부인 안동권씨 묘소(쌍분)(貞夫人安東權氏墓所(雙墳))
- ② 장사랑공(응경)(將仕郎公(應慶))
유인 함안이씨 묘소(합폄)(孺人咸安李氏墓所(合窆))
- ③ 지평공(승조)(持平公(承祚)) · 공인 한산이씨 묘소(합폄)(恭人韓山李氏墓所(合窆))
- ④ 지평공(시혁)(砥平公(時赫)) · 숙인 밀양박씨 묘소(합폄)(淑人密陽朴氏墓所(合窆))
- ⑤ 참봉공(기명) 묘소(參奉公(基明)墓所)
- ⑥ 주부공(하석)(主簿公(夏錫)) · 숙인 창녕성씨 묘소(합폄)(淑人昌寧成氏墓所(合窆))
- Ⓐ 문충공 신도비(文忠公神道碑)
- Ⓑ 제실(영모재)(祭室(永慕齋))
- ⑦ 서부공(귀수)(西阜公(龜壽))
단인 증 정부인 고성이씨 묘소(합폄)(端人贈貞夫人固城李氏墓所(合窆))
- ⑧ 도사공(응기)(都事公(應期))
증 정경부인 경주이씨 묘소(합폄)(贈貞敬夫人慶州李氏墓所(合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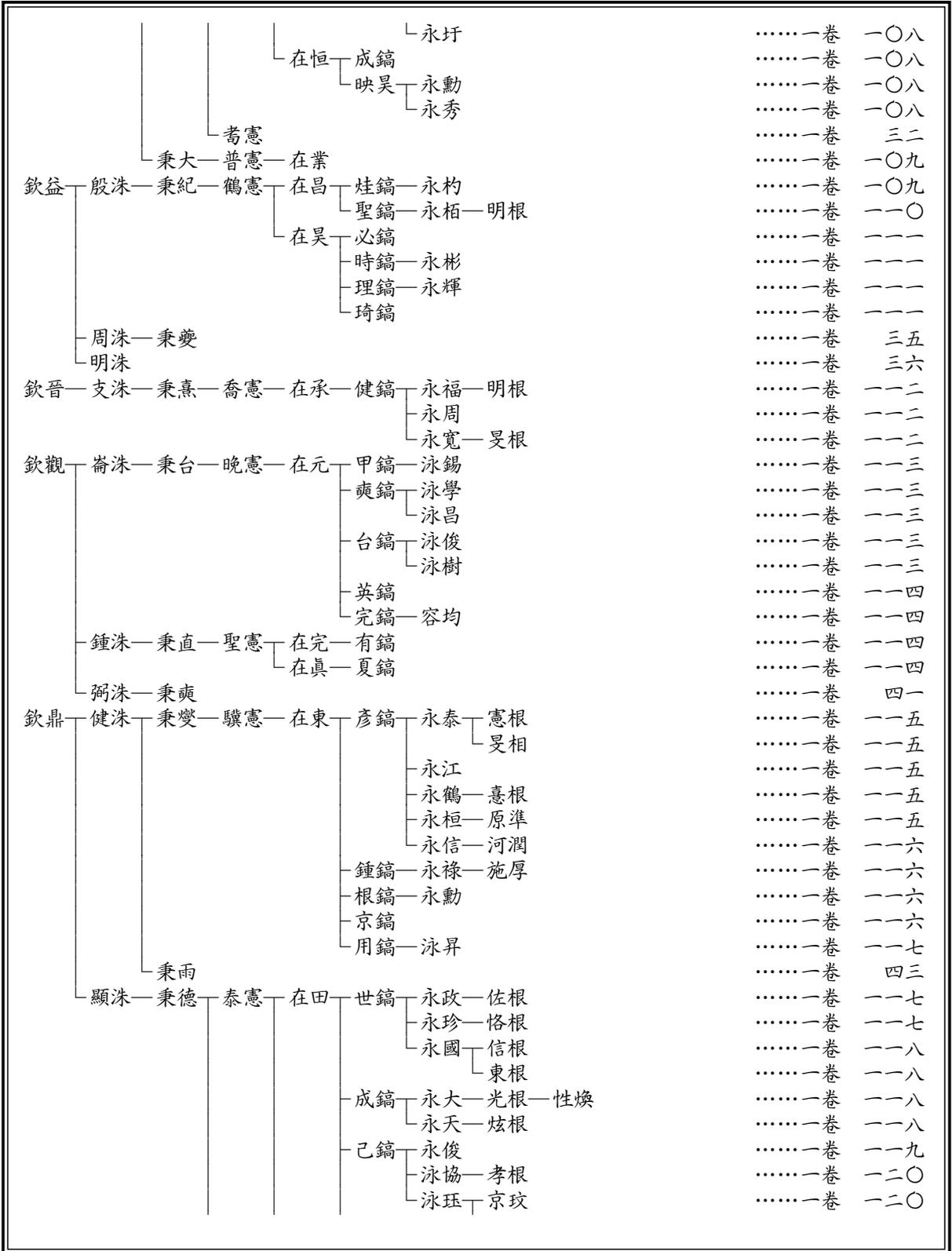
恩津宋氏派系圖(牧使公脚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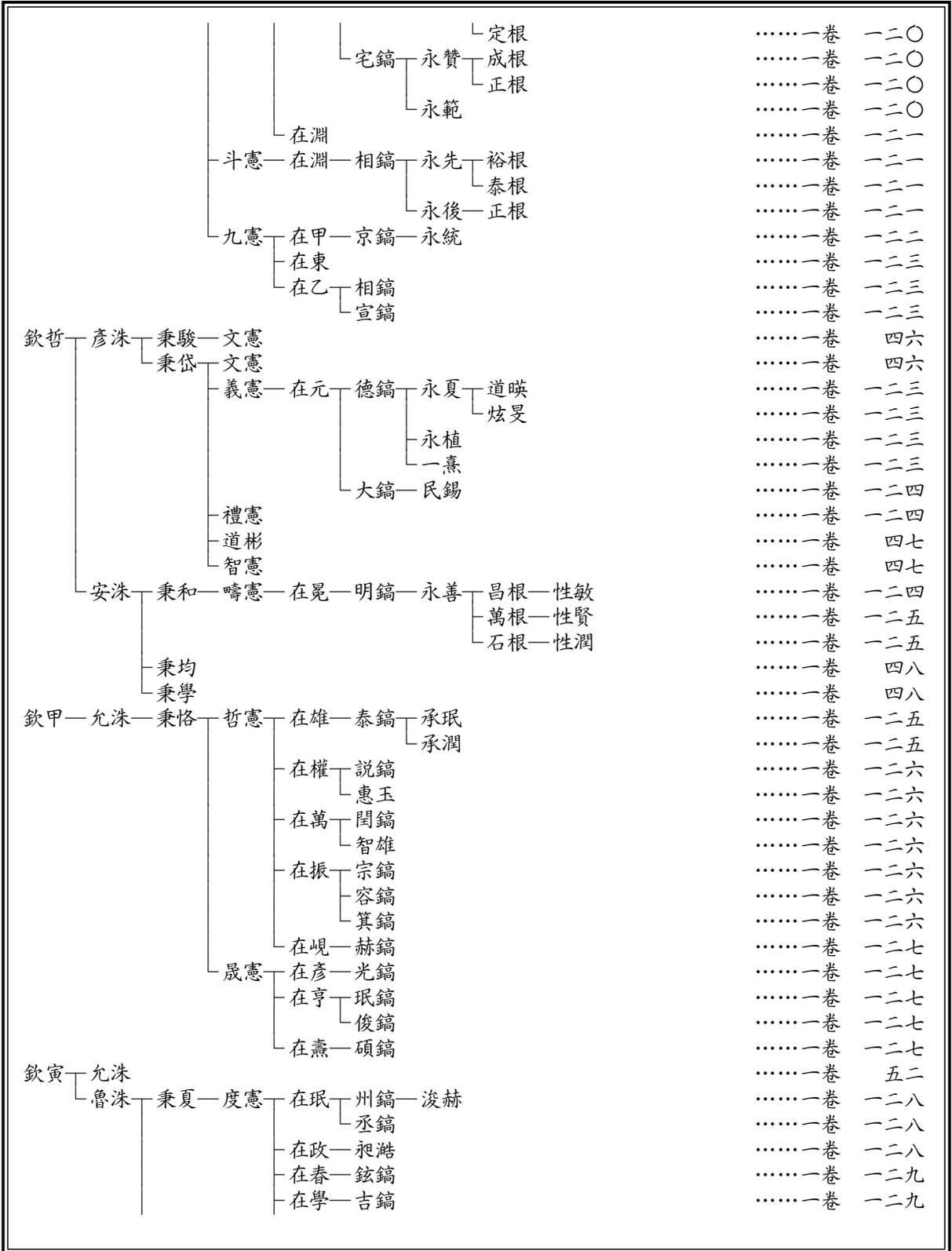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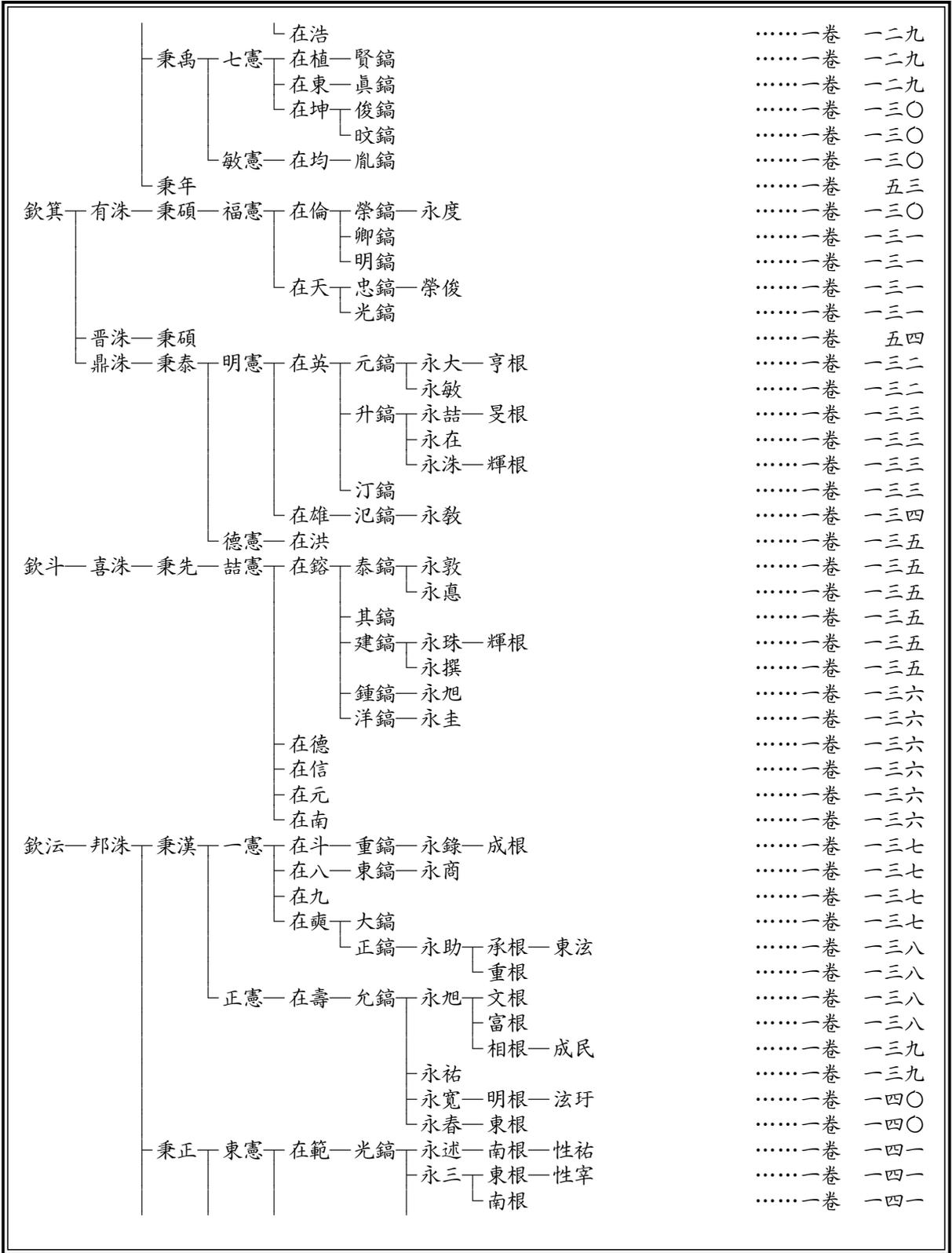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一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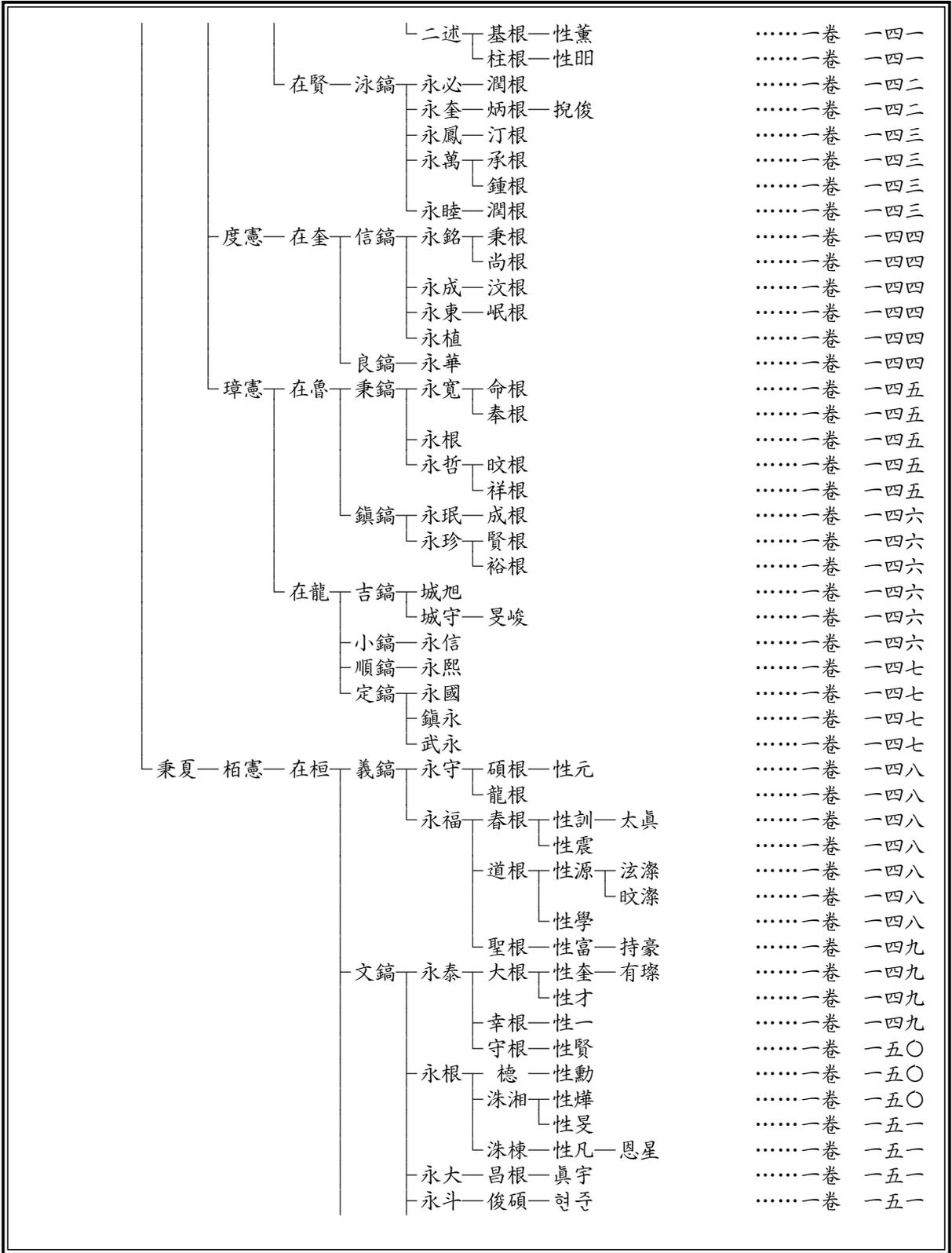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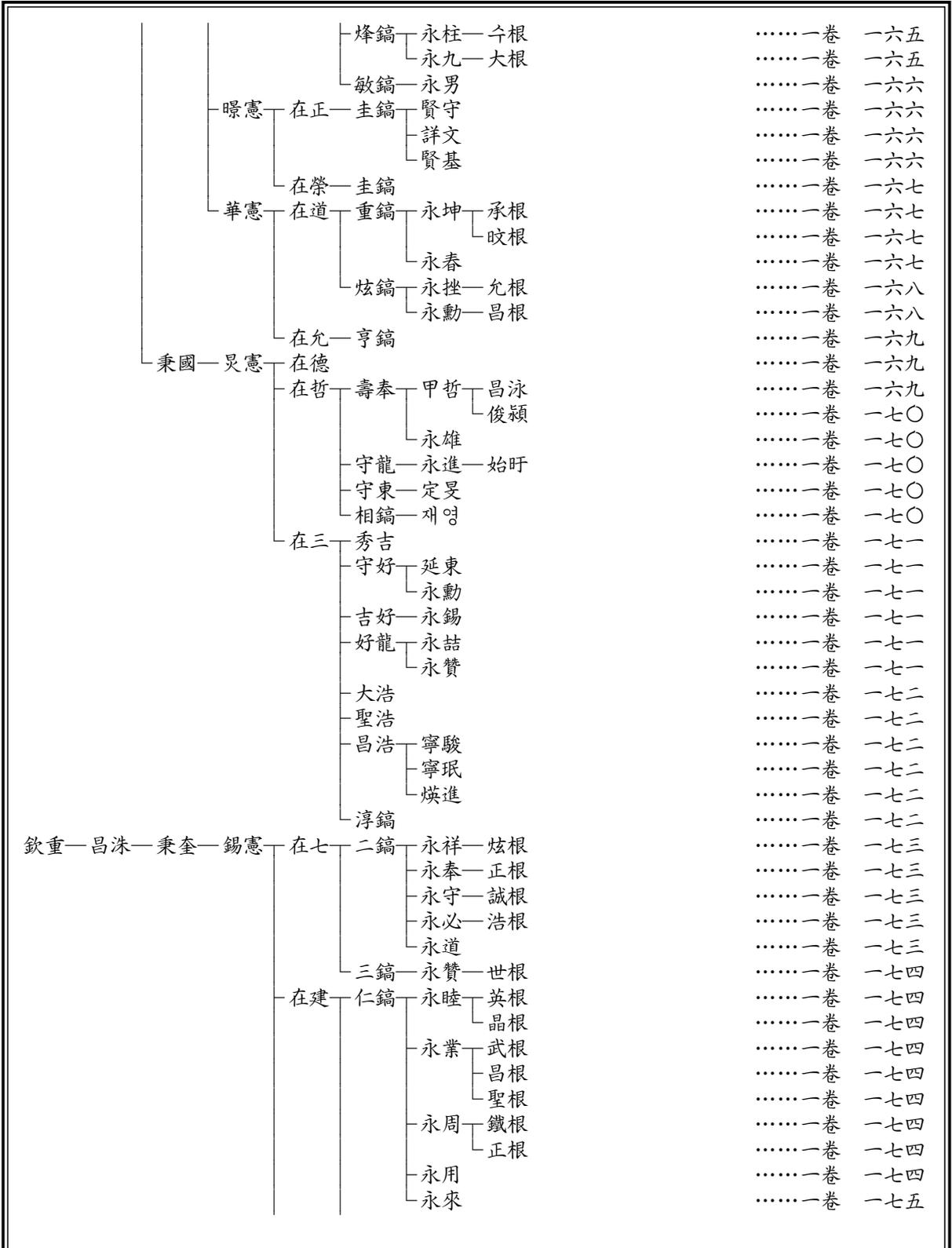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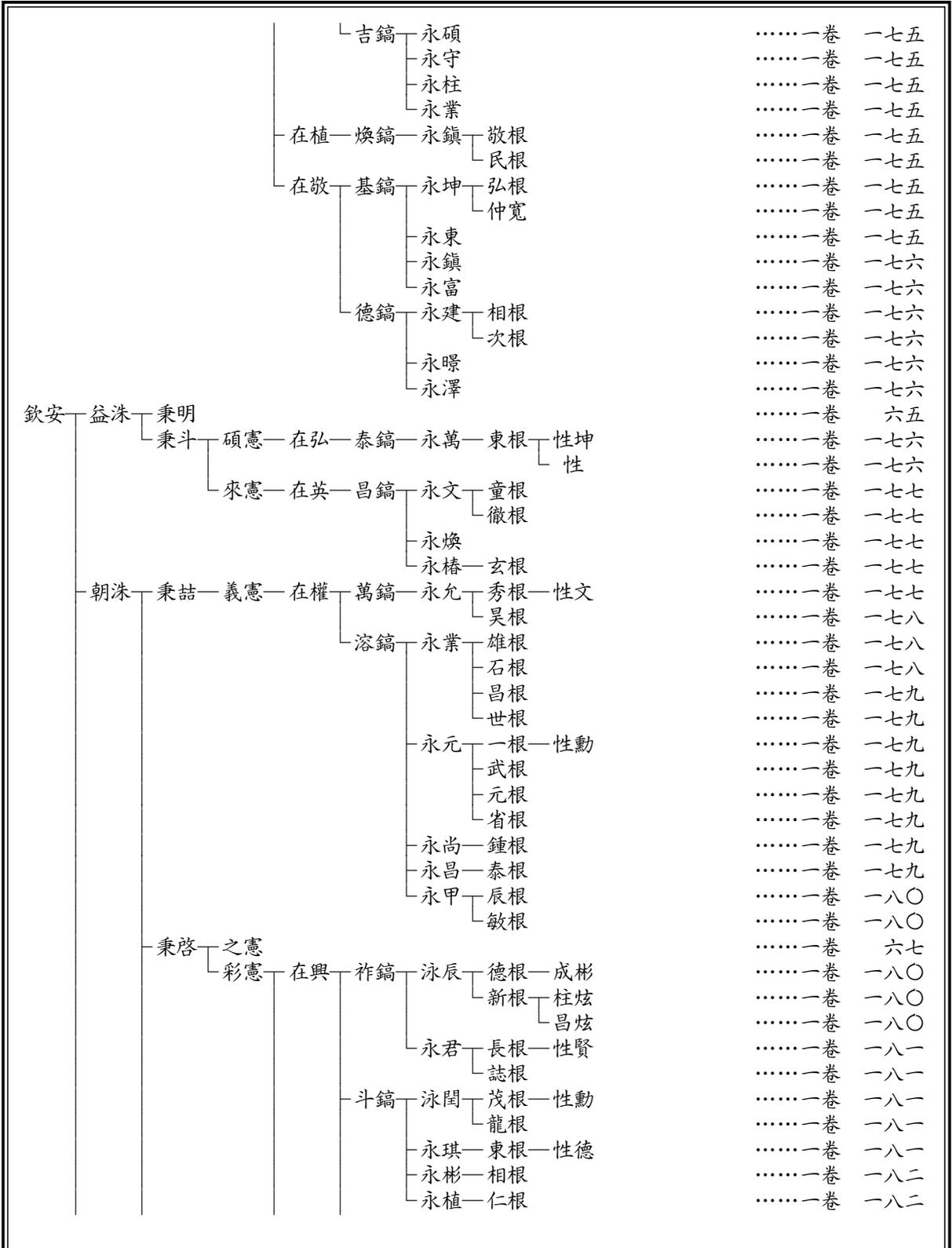












必憲	在寬	龍鎬	永喆—東根	……一卷	一九三			
			永草—民根—成勳	……一卷	一九三			
			永八	……一卷	一九三			
		漢鎬	永桂—泰根	……一卷	一九四			
			永敏—瑋根	……一卷	一九四			
			永萬—章根	……一卷	一九五			
		魯鎬	永達—大根	……一卷	一九五			
			愛貞	……一卷	一九五			
			永均	……一卷	一九五			
		俊鎬	永完	……一卷	一九五			
	永都		……一卷	一九五				
	永龍—炯根		……一卷	一九五				
	在旭	善鎬	永模	……一卷	一九六			
			永興—皓彰	……一卷	一九六			
	在福	承鎬	永守—弦根	……一卷	一九七			
			辛鎬	政勳	……一卷	一九七		
		尚勳—秀旻		……一卷	一九七			
	守憲	在坤	權鎬	昌鎬	永燦—弦錫	……一卷	一九八	
					旻錫	……一卷	一九八	
					優珍	……一卷	一九八	
			貴鎬	永弘—尤根	……一卷	一九九		
				永賢	……一卷	一九九		
				永熙	……一卷	二〇〇		
			有鎬	永用—原根	……一卷	二〇〇		
			相鎬	泳陳—民根	……一卷	二〇〇		
			良鎬	永尊—수근	……一卷	二〇一		
				千壽—정근	……一卷	二〇一		
			성근	……一卷	二〇一			
振鎬			永宙—炯根	……一卷	二〇一			
			永山	……一卷	二〇二			
淳鎬			……一卷	二〇二				
在業			忠	……一卷	二〇二			
	……一卷	二〇二						
在昇	淳鎬	永敦—種根	……一卷	二〇二				
		成根	……一卷	二〇二				
乘崙	崔漢爽	祚憲	在根	仁鎬	永宰—祥根	……一卷	六九	
					永原—盱炯	……一卷	二〇三	
					永三—琇根	……一卷	二〇四	
	祐憲	在晉	在根	在俊	鍾寬	……一卷	二〇四	
						萬伊—世煥—峻赫	……一卷	二〇四
						鍾德	……一卷	二〇五
		鍾出	영수	……一卷	二〇五			
			희영	……一卷	二〇五			

